# 인천지역 기업이 바라본 2026년 경제·경영 전망

2026. 1

인천상공회의소

# Contents

SECTION Ⅰ. 조사개요 2

SECTION Ⅱ. 조사결과

1. 2026년 경영환경 전망 2
2. 2026년 한국 경제 전망 4

[ 그림 목차 ]

<그림 1> 2025년 실적 대비 2026년 내수판매 목표 2
<그림 2> 2025년 실적 대비 2026년 수출 목표 3
<그림 3> 2026년 경영 계획 핵심 기조 3
<그림 3-1> 2026년 경영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친 변수 4
<그림 4> 전년대비 2026년 경기흐름 전망 4
<그림 5> 2026년 한국 경제 성장 견인 요인 5
<그림 6> 2026년 한국 경제 성장 제약 요인 5
<그림 7> 2026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경제 정책 과제 6

# Ⅰ 조사 개요

❍ 조사목적

- ▪ 인천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6년 경영·경제 환경 전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대책 마련에 의견을 개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❍ 조사기간 : 2025. 12. 1(월) ~ 12. 12(금)

❍ 조사방법 : 이메일 및 팩스 조사

❍ 응답기업 : 인천지역 소재 기업 208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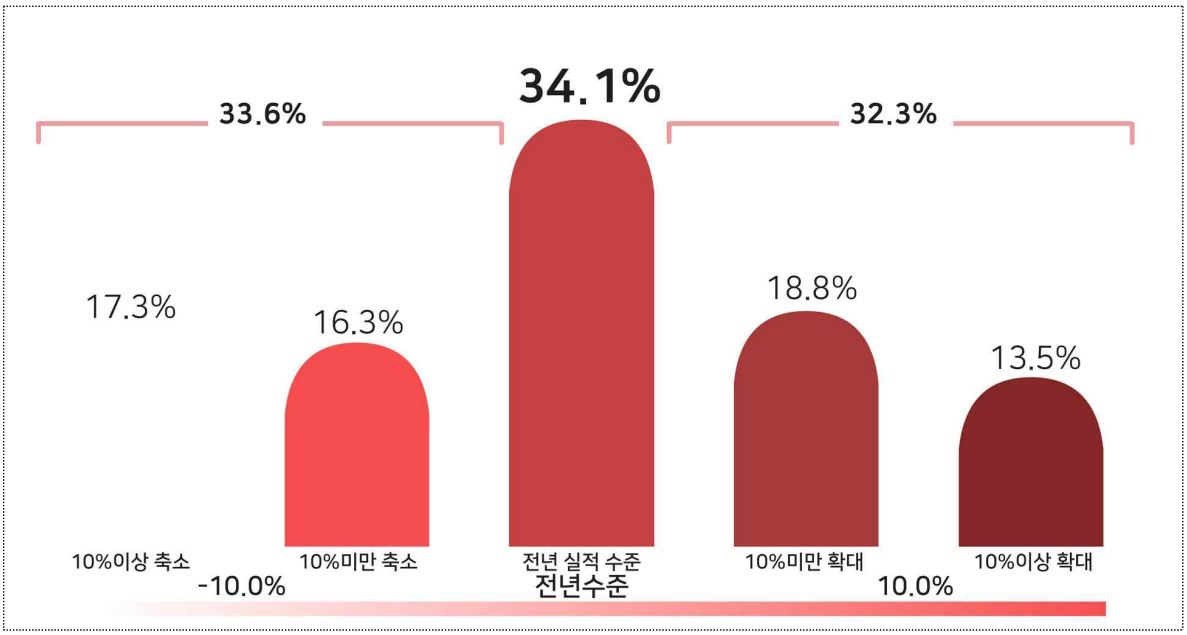
❍ 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 ± 6.63%p

# Ⅱ 조사 결과

## 1. 2026년 경영환경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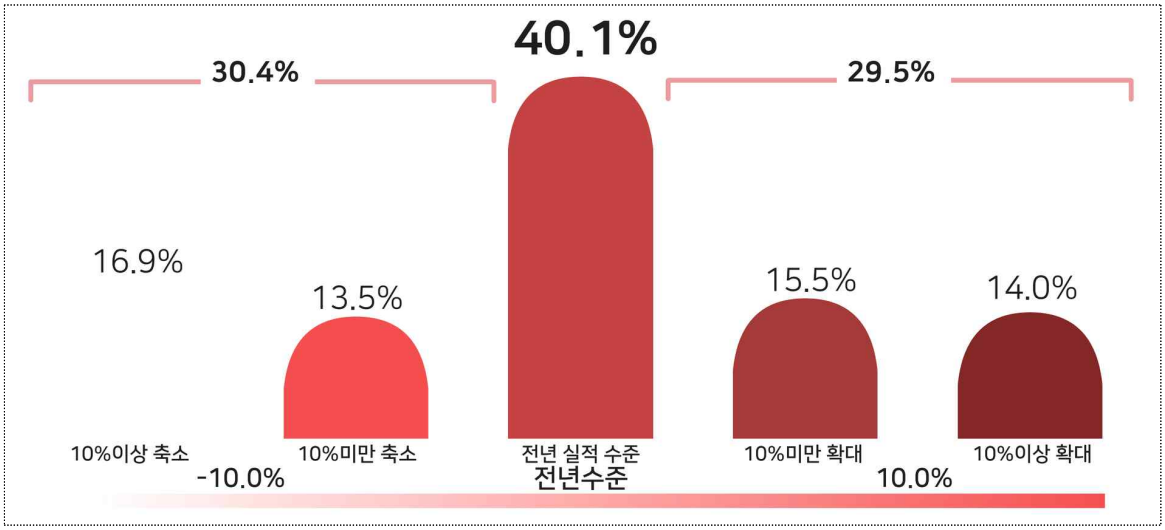
❍ 2026년 '내수판매' 목표의 경우, '전년 실적 수준'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34.1%로 나타남. 2025년 실적보다 내수판매 목표를 '축소'한 기업은 33.6%('10%이상 축소'(17.3%), '10%미만 축소'(16.3%))로 조사됨. 응답기업의 32.3%는 내수판매 목표를 전년 실적대비 '확대'('10%이상 확대'(13.5%), '10%미만 확대'(18.8%))한 것으로 밝혀짐.

**<그림 1> 2025년 실적 대비 2026년 내수판매 목표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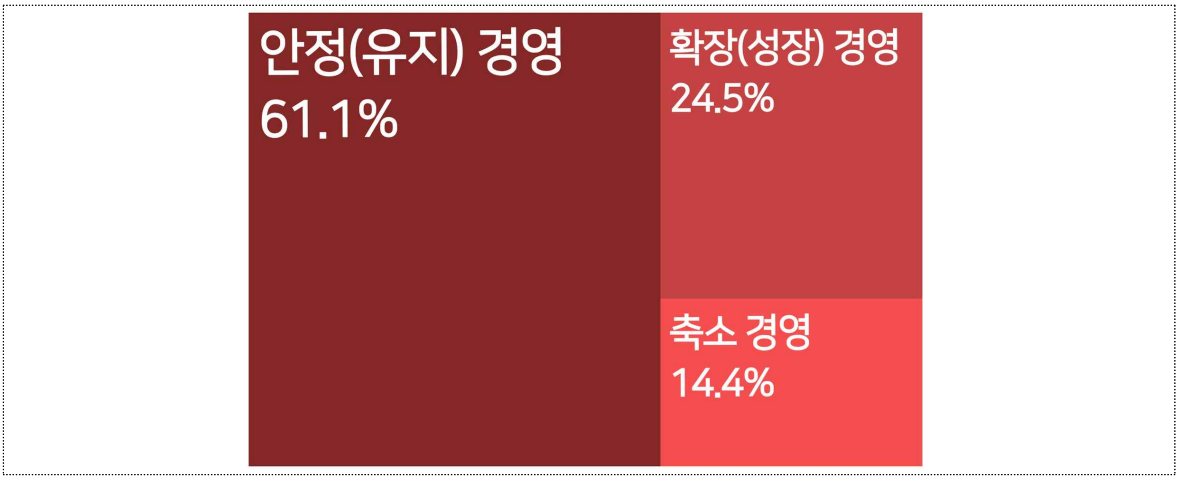
❍ 2026년 '수출' 목표의 경우, 응답기업의 40.1%가 '전년 실적 수준'을 유지한다고 응답함. 2025년 실적보다 올해 수출 목표를 '축소'한 기업은 30.4%('10%이상 축소'(16.9%), '10%미만 축소'(13.5%))로 나타남. 반면, 전년 실적 대비 올해 수출 목표를 '확대'한 기업은 29.5%('10%이상 확대'(14.0%), '10%미만 확대'(15.5%))로 조사됨.

<그림 2> 2025년 실적 대비 2026년 수출 목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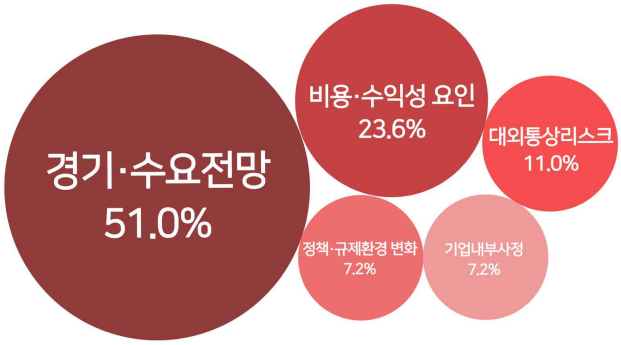

❍ 내수·수출 목표를 전년 실적 수준으로 설정하는 응답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, 2026년 경영 계획의 핵심 기조도 '안정(유지) 경영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1.1%를 차지함. 이어서, '확장(성장) 경영'(24.5%), '축소 경영'(14.4%)이 그 뒤를 이음.

<그림 3> 2026년 경영 계획 핵심 기조



○ 인천지역 기업들의 2026년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'경기·수요전망'(51.0%)이며, 다음으로 '비용·수익성 요인'(23.6%), '대외 통상리스크'(11.0%), '정책·규제환경 변화'(7.2%), '기업내부사정'(7.2%) 등의 변수가 경영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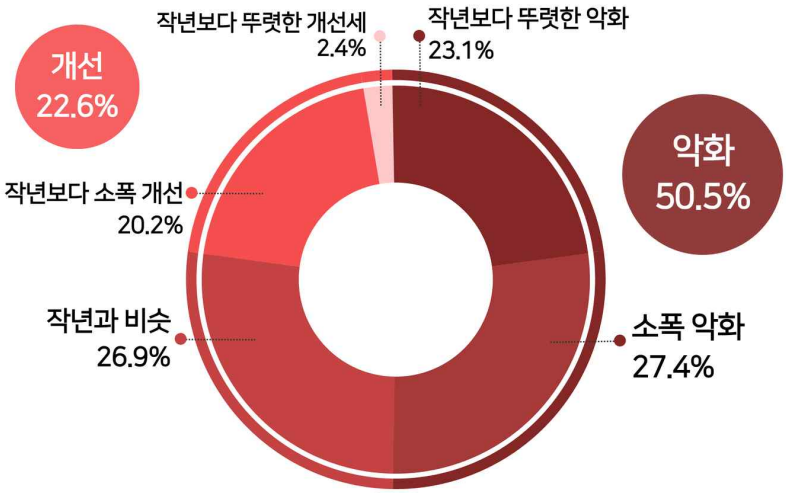
<그림 3-1> 2026년 경영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친 변수




## 2. 2026년 한국 경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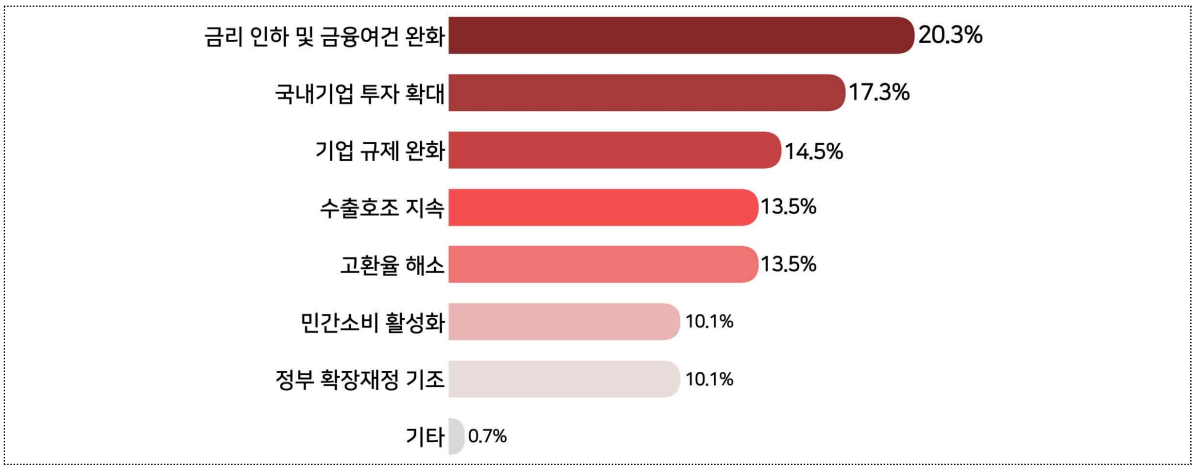
○ 경기·수요 전망이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가운데, 인천지역 기업의 50.5%는 전년 대비 2026년 경기가 '악화'('작년보다 뚜렷한 악화'(23.1%), '소폭 악화'(27.4%))될 것이라고 전망함. 2025년과 2026년 경기가 '비슷'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26.9%, 전년 대비 올해 경기가 '개선'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22.6%('작년보다 뚜렷한 개선세'(2.4%), '작년보다 소폭 개선'(20.2%))로 조사됨.

<그림 4> 전년대비 2026년 경기흐름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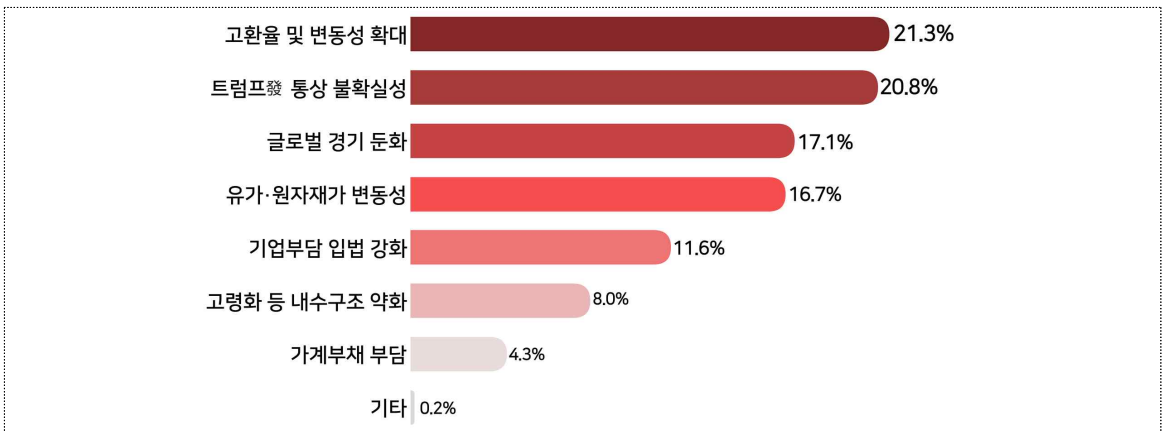
○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요 긍정 요인으로 인천지역 기업들은 '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'(20.3%)를 꼽음. 다음으로, '국내기업 투자 확대'(17.3%), '기업 규제 완화'(14.5%), '수출호조 지속'(13.5%), '고환율 해소'(13.5%), '민간소비 활성화'(10.1%), '정부 확장재정 기조'(10.1%) 순으로 나타남.

**<그림 5> 2026년 한국 경제 성장 견인 요인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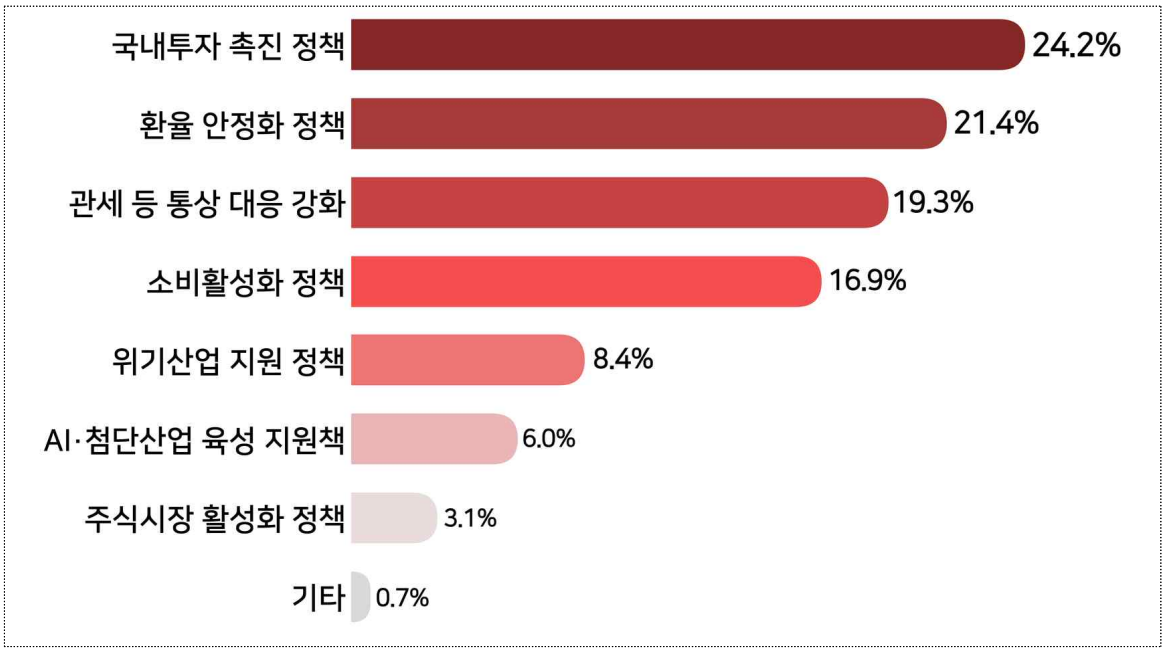



○ 인천지역 기업은 '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'(21.3%)를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가장 큰 하방 요인으로 지목함. 이어서, '트럼프發 통상 불확실성'(20.8%), '글로벌 경기 둔화'(17.1%), '유가·원자재가 변동성'(16.7%), '기업부담 입법 강화'(11.6%), '고령화 등 내수구조 약화'(8.0%), '가계부채 부담'(4.3%) 순으로 응답함.

**<그림 6> 2026년 한국 경제 성장 제약 요인**




※ 원달러 환율 변화 : ('25. 10. 1) 약1403.2원 → ('25. 11. 3) 약1428.8원 → ('25. 12. 1) 약1469.9원 → ('25. 12. 23) 약1483.6원 → ('25. 1. 9) 약1457.6원 (자료 : 한국은행)

❍ 2026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으로 인천지역 기업들은 '국내투자 촉진 정책'(24.2%)을 꼽음. 다음으로, '환율 안정화 정책'(21.4%), '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'(19.3%), '소비활성화 정책'(16.9%), '위기산업 지원 정책'(8.4%), 'AI·첨단산업 육성 지원책'(6.0%), '주식시장 활성화 정책'(3.1%) 순으로 조사됨.

**<그림 7> 2026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경제 정책 과제**